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박차

임실군, 임실읍·관촌면·오수면에 공공·민간임대·분양아파트 1000세대 공급

임실군에 총 1000세대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및 분양아파트가 들어서며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전망이다.

특히, 군은 임실읍과 관촌면·오수면 지역에 공공·민간임대주택 건립을 본격 추진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군무원 등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촌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세대(전용면적 84㎡ 60세대, 59㎡ 60세대) 규모로 사업지는 전주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섬진강과 사선대 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경관과 교통 등 생활 편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수 공공임대주택은 총 80세대(전용면적 59㎡) 규모로 공급되며, 사업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 SOC 공간이 집약된 상업지역 내에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다.

이번 관촌·오수 지역에 총 2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청



관촌면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



오수면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

년 및 젊은 신혼부부 등 외부 인구가 유입되어 해당 지역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임실읍에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 전북형 반향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입주자에게는 월 임대료 50% 할인 혜택, 자녀 출생 시 임대료 전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 제35사단과 제6탄약창 군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실읍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282세대(전용면적 84㎡)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는 작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말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민간 건설사도 27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 토지 매입 진행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추가로 민간 건설사에서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민간분양주택 128세대도 한 공급된다.

심 민 군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 촉진에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통해 군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학촌농요 보존·전승 위한 학술대회 22일 순창서 개최

전문문화유산인 학촌농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학술대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순창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다.

학촌농요는 1978년 당시 학촌마을이 장이었던 회재복 씨가 3년여에 걸쳐 마을에서 불리던 농요와 상여소리를 수집·정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1990년에는 MBC 문화방송에 출연해 녹음된 자료가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돼 농요와 상사소리 12개 파일로 전해지고 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공동체 문화는 2024년 유등면 학촌농요보존회가 재결성되면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촌농요보존회와 순창국악원, 순창문화원, 유등면 기초생활조성사업, 공동 화계가 함께 주최한다.

전문문화 연구자와 예술인,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학촌농요의 문화적·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 방안을 모색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구림농협,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준공식

순창군 구림농협이 지역 임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지난 11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 본부장과 조합장,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2023년 8월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본격 추진된 구림농협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건축면적 1,200㎡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준공을 계기로 지역 임산물의 품질과 유통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최신 유통 설비와 보관 시설을 갖춘 이 센터는 수확한 임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대량 물량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집하·보관에 그치지 않고 선별·포장·출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유통 과정 전반의 경쟁력을 높였다.

지역 농민들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효율화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25일, 베트남 호치민 소재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사무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뷰티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마케팅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트남 신규 판로개척 '맞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전북 바이오 뷰티기업 베트남 진출 협력

남원시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7월 25일, 베트남 호치민 소재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Ho Chi Minh, 이하 연합회) 사무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뷰티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마케팅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협약한 양해각서는 △전북 바이오 뷰티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정보교류 △현지 시장동향 및 자문협력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 등 실질 협력관계 구축 △제품교역 활성화와 위한 파트너십 강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 교류와 보안 유지 등이 담겨 있다.

연합회는 2003년 설립된 베트남 최대 한인 비즈니스 단체로, 약 400여 개 한국 기업과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베트남 내 진출 기업의 권익 보호, 비즈니스 환경 개선, 한-베 경제협력 증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구원은 도내 바이오 뷰티기업과 함께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코스모 뷰티 베트남 수출박람회에 참가해 총 5건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고, 이중 290만 달러 규모의 MOU(업무협약)과 LOI(구매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박람회 참가 기업은 ㈜에스비씨, ㈜세이, ㈜로크, ㈜로비스 총 4개 기업이며 기능성 스킨케어, 마스크팩, 선크림 등 제품군을 중심으로 공동 전시부스를 통해 홍보 및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2025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박람회 참가하기 전에 해외 바이어와의 사전매칭, 홍보자료 번역 등을 통해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원 이영철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지 기관과의 수출협력 기반까지 마련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남원시 및 관련 기관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뷰티기업의 세계 수출시장을 전격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전역 예비 장병 대상 취업역량강화 교육 진행

임실군이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길라잡이 역할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임실군로컬JOB센터(센터장 조옥선)를 통해 제36보병사단 강의실에서 전역을 앞둔 전역 예비 장병 9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장병들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을 통한 사회 진출의 발판을 다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미지메이킹과 비즈니스 매너 △창년 고용정책 및 지원제도 소개 △이력서 및 면접 준비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농협, 희망이음 의료지원금 전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농업인 가정에 '희망이음' 의료지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희망이음 의료지원금은 농협 도농상생운동본부 주관해 서울 영동농협의 후원을 받아 전북농협과 진행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박기열 조합장(사진)은 "농업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이 도모되도록 농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남원지역에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임실군이 지난 7일 임실읍 행북누리원에서 '임실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변경(안)은 임실읍 이도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역을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현재 약 15만㎡ 규모로 지정된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약 26만㎡로 확대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개선과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군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중 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